올리브영, 온·오프 통합 물류혁신 가속

용인에 통합물류센터 오픈

축구장 9개 크기… 업계 최대규모
매장·온라인센터 통합 재고효율화

내년 딥러닝기술 발주시스템 적용
연내 '오늘드림' 전국단위로 확대

올리브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조감도. /CJ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수도권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물류 혁신 가속화에 나선다.

CJ올리브영은 경기도 용인에 수도권 매장과 온라인몰 물류를 담당하는 통합물류센터를 오픈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통합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통합물류센터의 면적은 7만2000㎡(약 2만1800평)로 축구장 9개 크기에 달한다. 헬스앤뷰티(H&B)스토어 업계 최대 규모다. 이 곳은 기존 경기도 군포 복합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한 것으로, 4개동에 분산됐던 물류 시설을 지상 4층 규모의 단일 건물로 통합해 효율을 높였다.

무엇보다 기존에 건물을 분리해 운영해온 매장 물류(B2B)센터와 온라인몰 전용 물류(B2C)센터를 한 건물에 통합해 센터 간 재고 효율화를 극대화한 것이 강점이다.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760여개의 올리브영 수도권 매장 물류와 온라인몰 주문 상품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종시 중부 복합물류센터가 담당한다.

새롭게 구축한 수도권 통합물류센터의 경쟁력은 대형화와 첨단화를 통한 물류 혁신에 있다.

올리브영은 센터 대형화를 통한 공간 효율화와 물류 시스템 정교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수도권 통합물류센터는 기존보다 1.5배 이상 큰 규모로 각 층 마다 화물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적재 작업이 용이하게 했고, 층고를 높여 적재 효율이 25% 이상 개선됐다. 상품의 입고, 적재, 출고 과정 최적화를 위해 창고관리시스템(WMS)도 고도화했다.

오프라인 매장 물류 센터에는 박스 단위 상품의 고속 자동 분류 시스템인 '크로스 벨트 소터(Cross Belt Sorter)'를 새롭게 도입했다. 낱개 상품의 자동 분류 시스템인 'PAS(Piece Assorting System)' 와 'DAS(Digital Assorting System)'도 전보다 고도화됐다.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현재 수도권 매장에서만 일 최대 처리 가능 물량은 270만여 개에 달한다. 2020년에는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해 매장별 효율적인 재고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발주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몰 전용 물류 센터에는 전자상거래 상품 출고 작업에 최적화된 'QPS(Quick Picking System)' 설비를 도입했다. 작업자가 주문 박스를 들고 상품을 일일이 찾아 포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문 박스와 상품이 자동으로 작업자에게 오는 방식으로 개선해 하루 최대 4만 5000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리브영은 수도권 통합물류센터의 안정적인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에서의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내 온라인몰 주문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고, 오후 3시 이전 주문 건에 대한 당일 출고 서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수도권 물류 거점인 통합물류센터는 올리브영의 물류 인프라 혁신을 위한 초석이자 옴니(Omni) 채널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통단신

SPC그룹

'해피앱' 1000만 돌파

SPC그룹은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해피앱'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SPC그룹의 마케팅플랫폼 계열사인 'SPC클라우드'가 운영하는 '해피포인트'는 2000년 8월 론칭해 가입자 2000만명을 보유한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로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쉐이크쉑 등 전국 6300여 매장에서 편리하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SPC클라우드는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확산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2014년 해피앱을 선보였으며, 출시 5년 만에 국내 식음료업계 멤버십 서비스 중 최초로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박인웅 기자

오리온

'트위스트 오!감자' 출시

오리온은 기존 오!감자 제형을 회오리 모양으로 바꿔 통쾌한 식감과 재미요소를 극대화한 '트위스트 오!감자(**사진**)'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트위스트 오!감자'는 가운데 구멍 뚫린 오!감자를 뱅글뱅글 꼬아 회오리 모양으로 만든 감자 스낵이다. 감자 스낵 중 가운데 구멍 뚫린 회오리 모양의 과자는 국내 제과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1년여에 걸친 개발 끝에 차별화된 제형을 완성, 이중 삼중 '와작' 씹히는 통쾌하면서도 재미있는 식감을 만들어 냈다.

/박인웅 기자

빙그레 '비바시티'

굿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상

빙그레의 여성 전문 건강 브랜드 비바시티(**사진**)가 '2019 굿디자인(GD)'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굿디자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198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인증 제도로 우수 디자인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비바시티는 여성 전문 건강 브랜드로 구미젤리 3종, 스틱젤리 3종이 있다. /박인웅 기자

롯데마트, 돌아온 '우뢰매' "피규어 사전예약 받아요"

작년 태권브이 이어 13일 접수
사전예약땐 주인공 피규어 증정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국산 캐릭터 '우뢰매'가 돌아왔다.

롯데마트는 지난 해 태권브이 피규어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우뢰매 피규어(**사진**)'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우뢰매는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를 시작으로 1993년 '무적의 파이터 우뢰매'까지 총 8편의 작품이 나왔으며, 초반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국내에 일본 등 외국 캐릭터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추억의 뒤편으로 쓸쓸히 사라졌다. 당대 최고 인기 개그맨이었던 '심형래'가 주인공을 맡아 연기했다.

하지만 최근 과거를 그리워하는 레트로 트렌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 캐릭터 위주의 국산 캐릭터 시장에서 과거의 토종 국산 캐릭터를 그리워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롯데마트는 70~80년대 토종 캐릭터를 제품화해 '7080 세대'에게 추억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도 국산 캐릭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토종 피규어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합금 태권브이'의 경우 3000개가 판매되며, 토종 국산 캐릭터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우뢰매 피규어'는 우뢰매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우뢰맨 5'에 나왔던 로봇을 활용한 '뉴머신 우뢰매 피규어(애니컬러/메탈릭컬러)'로 14만8000원에 오는 13일부터 토이저러스몰에서 2000개 한정으로 사전 주문을 받는다. 상품 배송의 경우 사전예약 기간 이후 제작에 들어가 2020년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의 사이즈는 약 42cm로, 김청기 감독이 이번 프로젝트의 감수를 직접 맡았으며, 2017년 토이저러스에서 태권브이를 만들어 대형 유통사 최초로 피규어 성공사례를 썼던 '하비플레스'의 이동한 작가와 '노메이크스튜디오' 김경인 작가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우뢰매 피규어 출시를 기념해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우뢰매 주인공인 '에스퍼맨', '데일리'의 미니 피규어도 증정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삼겹살·전복 등 400종 50% 할인

개점 26주년기념 13일까지 행사

이마트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삼겹살, 전복, 고등어 등 총 400여 종의 행사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상품은 2013년 3월 이후 80개월 만의 최저가격이면서 수입 냉동 삼겹살(100g당 990원)보다도 저렴한, 1등급 이상으로 엄선한 국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으로 가격은 각 840원(100g, KB카드 결제 시/KB국민 BC 제외)이다.

이마트는 삼겹살, 목심 판매가를 당초 각각 100g당 158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한 데 이어, 행사 기간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우리/씨티카드, BC카드 제외)로 결제 시 30% 할인 혜택(980원)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결제 시에는 여기에서 10% 추가 인하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한돈 자조금과의 사전 준비를 통해총 240톤, 돼지 2만여 마리 분의 삼겹살을 마련했다. 이는 평상시 이마트 1주일치 삼겹살 판매량의 6배가 넘는 물량이다. 목심까지 합치면 행사 기획 물량만 300톤을 넘어선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中 국제수입박람회 참여

CJ제일제당이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리는 '제 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상무부와 상해 인민정부의 공동 주최 하에 진행되는 국가급 행사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뿐 아니라 자동차, 의류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11월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며 150여개국의 3700여개 기업들이 참가한다.

CJ제일제당은 국가회의전람센터 내 CJ그룹관에서 '비비고존'과 '햇반존'을 운영한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식대도 마련했다. 각 브랜드 존에서는 브랜드별 대표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제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제품 시식 행사는 6일에 걸쳐 '비비고 왕교자', '햇반컵반 볶은김치덮밥', '햇반컵반 옐로우 커리 덮밥' 등의 메뉴로 구성해 총 1350식을 제공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